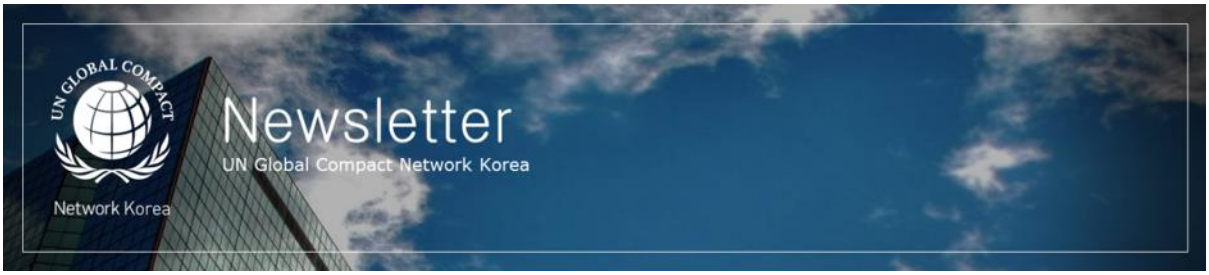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195 호

2018 년 12 월 15 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인권,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토대: 유엔 기업과 인권 연례포럼 특별리포트 <1 호>
2. UNGC 신 연회비 정책 소규모 간담회 개최 (12/21)
3.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 2차 세미나 결과 공유 (12/13)

■ **본부 소식**

1. Executive Update: 인권, 기후 행동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
2. 세계 반부패의 날, 유엔글로벌콤팩트 CEO 겸 사무 총장 Lise Kingo의 성명서
3. 유엔글로벌콤팩트, 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준의 포부를 가지고 과학적 기반의 목표를 설정할 것을 촉구
4. [본부발간자료] The Ambition Loop - How Business and Government Can Advance Policies that Fast Track Zero-Carbon Economic Growth (2018)

■ SDGs 소식

1.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목표 4 – 양질의 교육
2. [SDGs 시장기회] 스마트한 수도 기술
3. [SDGs 솔루션] 원하는 대로 변형되는 모듈식 아동 가구

■ UNGC 회원 뉴스

1. 아프리카 케냐 감염병, KT가 막는다
2. 농협은행, 7년 연속 은행권 사회공헌 '1위'
3. 한국도로공사, 한국윤리경영학회 학술대회 '윤리경영대상'
4. 한전KDN, 협력사 '윤리·인권 경영체계 수립 지원' 협약식 개최

■ CSR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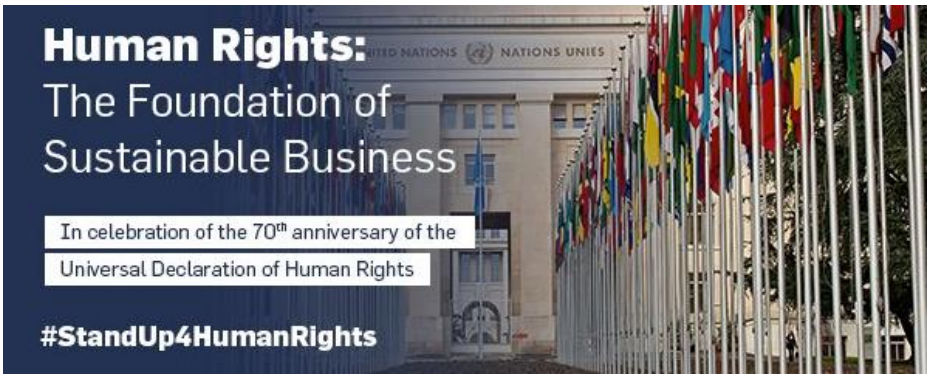
1. "부패통제 뉴거버넌스 통해 청렴 사회로 도약해야"
2. 납품배제·거래중단…수출기업에 '사회적 책임'(CSR) 비상등
3. 내년 사회적금융 2천400억원 공급…사회가치연대기금도 설립
4. "사회적 가치, 시민사회가 이끌고 정부가 지원해야"
5. 전 세계 이주노동자 1억6천400만명…2013년보다 9% 증가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18년 연회비 납부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인권,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토대: 유엔 기업과 인권 연례포럼 특별리포트 <1 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의 증진 및 이행을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UN For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이 지난 11 월 26 일부터 28 일까지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회의에는 협회의 소완 연구원과 이서영 연구원이 참석해 UNGC 지역협회 세션을 공동주최하고, 국제사회의 기업과 인권 이슈 현황과 기업, 정부,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의 역할을 논하는 포럼의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느끼고 왔습니다.

제 7 회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의 의제와 주요 세션 내용, 그리고 기업과 인권 연례포럼의 뒷이야기를 특별판으로 전해드립니다.

I. 포럼 내용

□ **제7회 유엔 기업과 인권 연례포럼 개요**

○ 일 시: 2018년 11월 26일.(월) – 28일.(수)

○ 장 소: 유엔 본부 (스위스 제네바)

○ 규 모: 약 2,500명 (정부, 기업, 협회, 시민사회, 로펌, 투자자, 국제기구, 학계, 미디어 등이 참가하였으며 기업 비율은 약 30%)

○ 주 제: 기업의 인권 존중 (Business respect for human rights – building on what works)

○ 구 성:

-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최근 동향 및 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글로벌 대화 ·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동 포럼을 설립함. 인권이사회 결의안 17/4 및 35/7에 따라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의장직을 수행함
- 기업과 인권 이슈 및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 관련 최근동향 및 사례에 대한 120여개의 분과세션이 동시에 진행됨

□ **세부 세션**

① 개회 총회

ⓒOHCHR

ⓒUNGC Network Korea

○ 일 시: '18.11.26.(월) 11:00 – 13:00

○ 주 제: 개최 총회 (Opening Plenary)

○ 내 용:

1) 좌장: Kate Gilmore, United Nations Deputy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2) 개회사: Dante Pesce, Chairperson, UN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UN 및 OECD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최초로 UN의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과 OECD의 기업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을 한자리에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음
- 본 포럼은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업 활동 내에서 여성,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의 인권 존중 증진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은 기업이 비즈니스 활동시 이행해야하는 공통적 프레임워크이며, 기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은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위한 필수요소임
- "기업의 인권존중(Business respect for human rights – building on what works)"은 올해 포럼 주제이며, UNGPs의 두번째 축에 해당함.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는 기업의 부정적 영향 예방 및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 본 포럼에서는 다양한 산업의 인권실사 사례와 위험요소 및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룸
- 기업의 인권실사 국제법 및 국제기준과 비교하여 각 국가별 법안·정책 및 리더십 수준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한 정부측 논의가 있을 예정임. 금융 분야에서도 인권실사가 위험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인지하고, 투자자 및 재무분석가들이 기업이 인권실사를 하도록 어떻게 유도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있을 것임
- 기업의 인권존중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임. 선도적인 기업들은 이미 인권실사를 위해 자체적으로 툴과 체계를 구축하여 내재화하고 있지만, 아직 남아 있는 격차와 도전과제가 많음. 본 포럼에서 우수기업 사례 및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공유할 것임

3) 개회사: Michelle Bachelet,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No one is left behind)"의 기본 정신을 갖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아젠다에서 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기업의 인권존중에 가속도가 붙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많은 기업들이 인권책임에 대해 인지하고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예방 및 구제 절차를 준비하고 있음. 또한 기업들은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인권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다국적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인권존중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 기업은 비즈니스 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인권존중을 이행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공급망에 포함된 모든 기업들이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함
- 인권실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예방하는 것임. 앞으로 인권실사는 소비자들의 기대 기준이 될 것이며, 기업은 가능한 빨리 이행방법을 숙지하고 이행을 시작해야함
- 본 포럼에서는 정책입안자 및 선도적인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실현방법을 논의할 것임

② 분과 세션 : 국가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 현황

ⓒOHCHR

○ 일 시: ’18.11.26.(월) 15:00 – 16:20

주 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의 국가별 이행 현황 – 국별 과제와 혁신, 시사점 (Are States making progress on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Challenges, Innovations and lessons learned from implementation)

○ 내 용:

1) 좌장: Dante Pesce, Chairperson, UN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 발표자: Maylis Souque, Secretary-General French NCP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Ministry of Economy, France

- 프랑스 정부는 2017년 4월 NAP를 발간했으며, 기업과 인권 구제 매커니즘 관련 새로운 법안 “기업인권모니터링의무법(Duty of Vigilance Law)”을 제정하고 기업이 UNGPs를 토대로 인권실사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연성법과 경성법에 대한 적절한 분배가 필요함

3) 발표자: Somn Promaros, Director-General of the Rights and Liberties Protection Department, Ministry of Justice, Thailand

- 태국 정부는 2018년 8월 기업과 인권 NAP 초안을 발간했으며, 법무부 Rights and Liberties Protection 부서가 담당하고 있음. 올해 초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태국을 방문하여 기업과 인권 예방, 완화, 구제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피드백과 UNGPs를 NAP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음. 올해말 NAP 발간 예정임

4) 발표자: Meo Beyan, Assistant Minister for Economic Affairs,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Liberia

- 라이베리아 정부는 2013년 NAP(5년 계획)를 발간했으며, 라이베리아에서 기업과 인권은 매우 중요한 이슈임. 정부가 거버넌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음. 기업과 인권 국제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NAP를 통해 기업이 운영과정에 기업과 인권 시스템을 내재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또한 차기 NAP 초안 준비를 위해 케냐에서 다자간 이해관계자(정책입안자 포함) 미팅을 가졌음

5) 발표자: Francisco Barbosa, Presidential Adviser on Human Rights, Government of Colombia (Replacement)

- 콜롬비아 정부는 2015년 12월 1차 NAP 발간 이후, 2차 NAP(2019-2022) 발간을 위해 인권국과 논의 중임. 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관 간 실무 그룹과 자문위원회

가 설립되어 작년에만 다섯 차례 이상 회의를 가진 바 있음. 정부는 기업이 본 과정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기업과 인권 이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지의 인권 현황, 리스크 요소를 반영해 인권실사를 진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6) 발표자: Lorena Recabarren, Subsecretary of Human Rights, Government of Chile

- 칠레 정부는 2017년 7월 첫번째 NAP를 발간했으며, 외교부에서 2015년부터 담당했음. NAP는 UNGPs 이행 로드맵이며, 수립 과정에 기업,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음.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아젠다를 채택을 통해 기업과 인권 및 UNGPs 이행을 촉진하고 있음. 정부는 인권보호에 대해 점점 더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고, 정책을 보완하고 있음

③ 분과 세션(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협회 공동주최) : 글로벌 공급망 내 인권이슈

ⓒUNGC

ⓒUNGC Network Korea

○ 일 시: ’18.11.26.(월) 16:40 – 18:00

○ 주 제: 글로벌 공급망 내 인권 – 상호 연결의 시대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Supply Chains – Where is the disconnect?)

○ 주 최: UNGC 지역협회(한국, 브라질, 중국, 콜럼비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케냐, 폴란드, 스페인, 스위스, 태국, 터키, 영국), UNGC 본부 공동주최

○ 구 성: 영국 협회의 개회사에 이어, DIHR의 주제발표, 스페인 Iberdrola와 인도네시아 PT Kampung Kearifan, 스위스 Nestle의 패널발표가 있었음. 콜럼비아 Avianca와 프랑스 Total의 청중질문에 이어 리세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의 폐회사로 마침. 또한 세션 진행 중 청중 참여를 독려하고 위해 slido 프로그램을 통

해 즉석에서 질문을 받고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음

○ 내 용: 다국적 기업의 본사, 현지법인, 공급업체의 관점에서 글로벌 공급망 내 인권실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관리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 했음. UNGC 본부에서는 오는 1월 UNGC 지역협회의 기업과 인권 현황 및 활동을 담은 'UNGC LN 기업과 인권 활동집'을 발간 예정임

1) 좌장: Steve Kenzie, Executive Director, Global Comapct Network UK

2) 발표자: Claus Teilmann Petersen, Department Director, Human Rights and Business,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DIHR)

- 많은 기업들이 기업과 인권 이슈의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임. 기업에서는 기업과 인권 이슈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보다는 단순한 인권침해 문제로 접근되었었음. UNGPs는 인권경영의 표준화된 국제규범으로 기업들에게 기업과 인권 문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와 기대수준을 제시함

- 기업의 인권실사는 산업에 관계 없이 공급망 등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각 산업과 기업의 성격에 맞게 자가평가(self-assessment),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유연한 정책 및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DIHR는 산업별 도전과제, 지역 특성에 따라 기업과 인권 이슈를 전망하고, 솔루션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기업은 이해관계자별 이니셔티브 참여를 통해 산업별 도전과제 파악과 공동행동이 가능함

3) 폐회사: Lise Kingo, CEO & Executive Director, UN Global Compact

-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최근 가장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두가지 이슈가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과 '성평등'임

- 2018 UNGC 이행보고서 조사 결과, SDGs 17개 목표 중 UNGC 회원사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목표로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목표 8)'을 꼽음. UNGC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위해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신규 행동 플랫폼 '글로벌 공급망 내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in Global Supply Chains)'을 런칭하였음

- UNGC는 SDGs 목표와 수단 간의 연결고리를 고려해볼 때 UNGC 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UNGPs를 준수한다면 SDGs의 목표 80%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공급망 이슈를 비롯해 SDGs를 지역 차원으로 확장하는 Making Global Goals Local Business에 힘써준 UNGC 지역협회들에 감사를 표함

II. 포럼 사진

사진 1. UNGC 지역협회 공동주최 분과세션

사진 2. UNGC 제네바 본부 회의장

사진 3. 분과세션 정리자료

사진 4. 유엔 본부 (스위스 제네바)

사진 5. UNGC 지역협회 기업과 인권 활동집

ⓒUNGC Network Korea

2. UNGC 신 연회비 정책 소규모 간담회 개최 (12/21)

UN Global Compact (UNGC) 본부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UNGC 2030 Vision 및 2020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자발적 기여에서 의무로 바뀌는 신(新) 연회비 정책을 도입하고, 본부와 한국협회 간의 재정 배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UNGC 의 모든 영리 회원사는 참여 정도에 따라 레벨 (Signatory 또는 Participant) 선택 및 매출액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추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존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연회비 정책은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유효하며, 2019 년부터 변경되는 신(新) 연회비 정책의 구체적인 도입 시점은 회원사 의견을 수렴 후 반영될 예정입니다.

변경되는 정책의 보다 나은 이해를 돕기 위한 소규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가능하신 일시에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8.12.21(금) 15:00 - 16:30**
[장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 본 간담회 대상은 매출액 500 억 이상 기업입니다.

신연회비 정책 안내

간담회 신청 링크 바로가기

사전 서베이 바로가기

3.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 2 차 세미나 결과공유 (12/13)

지난 4 월 19 일 기업 부패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원, 학계, 국제기구 및 반부패 전문가 그룹이 함께 발족한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의 2 차 세미나가 12 월 13 일(목) 국회의원회관 9 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은 국내 기업의 반부패 책임 관련 법·제도·정책 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부패 리스크 확대에 따른 국내 기업의 효과적 대응 환경을 제고하고자 출범된 민관협력 협의체 입니다.

본 세미나는 국회의원 권미혁, 박찬대, 임종성, 제윤경, 홍익표, 김현아, 채이배, 윤소하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투명성기구가 주최하고, 딜로이트 코리아(Deloitte Korea)와 영국왕립표준협회 한국지사(BSI Group Korea)의 협력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업 준법지원인을 비롯한 약 60 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의원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채이배(바른미래당)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영호 이사장, 한국투명성기구 이선희 대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박석범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반부패 전문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이건리 부위원장의 정부 반부패 정책 소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김병섭 의장의 협의회 활동 소개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무부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갑질, 불공정거래 문제 등으로 기업이 휘청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반부패를 위한 소통 창구가 부족하다고 여길 수 있다"고 말하며, "본 포럼에 여러 정부 부처의 참여가 확대된 데에는 그 동안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며, 실효성 있는 반부패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부-기업의 소통 창구 기회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재벌개혁운동을 20 년째 추진 중이나 재벌 총수 등 기업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행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사법·정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검찰과 법원이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김영호 이사장은 "전세계적으로 사회책임투자(SRI) 펀드가 활발히 운용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시장은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부패 기업에 투자하는 SRI 펀드가 국내에도 활성화되어 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의 반부패 노력이 기업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한국투명성기구 이선희 대표는 "청렴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설명하며,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부패의 관점을 장착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여야를 막론하고 여덟 분이나 참여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청렴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이며, 부패를 위한 싸움은 입법·행정·사법 및 민간을 아우르는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박석범 사무총장은 "한 때 엄격한 반부패 법의 집행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억제한다는 패러다임이 있었으나, 새로운 시대는 청렴이 경쟁력이 되고 지속가능성의 원천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히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약속과 협력이 필요하며, 오늘 이 자리가 높아진 인식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고 청렴하고 선진적인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정부의 반부패 정책 및 추진 방향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 이건리 부위원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수준이 아직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음을 언급하며,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정책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소개했습니다: ▲5 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이행, ▲부패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법령 제·개정, ▲부패취약기관 집중 개선,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의 안정적 정착·확산, ▲부패신고자·공익신고자 보호 내실화. 또한, 현재 51 위에 머물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를 2022 년까지 20 위 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기업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을 제고하고 협업을 통한 윤리경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김병섭 의장은 부패통제 거버넌스의 역사를 설명하며, 우리사회가 부패한지 묻는 국민인식조사에서 과거 1999 년 90% 대비 2018 년 현재 53.4%로 현저히 낮아진 양상을 보이고 있어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친 반면, 앞서 언급한 부패인식지수(CPI)의 20 위 권 진입을 위해서는 더욱 공격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부패행위를 통제하는데 있어 주체의 다양화, 즉 '컨트롤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현 정부의 핵심과제이자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역할임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강화하여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민관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는 정기적인 회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부처별 발표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경쟁정책과장의 발표로 시작되었습니다. 송상민 과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1 년부터 도입하여 시행 중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소개하며, "기업은 CP 운영을 통해 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하여 법위반 발생에 따른 과징금 등의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가능하게 한다"고 CP 의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2001 년 이후 상당수 기업들이 이미 CP 를 도입(2018 년 현재 678 개)함에 따라 양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고, 향후 CP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인센티브 재설계, CP 법적근거 마련, 도입명령 검토'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김선문 회계감독팀장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스스로의 투명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뢰가 투자로 이어지고, 투자가 성장으로 이어짐"을 강조했습니다. 김선문 팀장은 회계개혁의 필요성에 관해 언급하면서, "기존의 관행은 엄격한 회계처리의 중요성에 대한 경영진의 낮은 인식과, 감사품질 보다는 감사인의 영업력이 경쟁력을 결정했다"고 지적하며, 2018 년 11 월부터 시행 중인 외부감사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 강화, ▲회계부정 적발·조치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강화, ▲유한회사 외부감사법 적용, ▲핵심감사제 전면 도입,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제재 강화, ▲감리 선진화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내부감사기구의 전문성 제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오진세 국제형사과 검사는 반부패 국제동향과 더불어 OECD, FATF, UN, G20, APEC 등의 반부패 회의체에 대응하는 국제형사과의 업무를 소개하며, 중대 부패범죄 엄청 처벌 기조 확립,

부패 범죄수익 환수 강화,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준법지원인제도, 부패방지관련 법령 개정 등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반부패 정책업무에 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 본 세미나에 앞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서베이에 대한 딜로이트 코리아 한성욱 이사의 결과 공유가 있었습니다. 사전 서베이에 참여한 기업/기관은 총 35 곳으로, 특히 대기업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50% 이상으로 두드러졌습니다. 서베이 응답자들은 경제적 관점으로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연기금의 기업 반부패 요구 강화, 기업의 ESG 정보 공개'를 꼽았으며, 법률적 관점으로는 '부패방지에 대한 국제수준의 국내법 제정, 기업의 면책·감면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기업인 처벌에 대한 사법부 신뢰 및 공정성 회복'을 선택했습니다. 아울러, 정책적 관점으로는 '독립적 부패방지기구 설립과 체계적 반부패 정책 추진, 기업 경영자의 반부패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공공 발주의 반부패 경영 체계 공시·인증 기업 가점'에 대한 의견과 정기회의체 운영에 관한 높은 수요를 보였습니다.

이어진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 시간은 한국투명성기구의 유한범 사무총장의 진행 및 한국사내변호사회 최준우 컴플라이언스분과 위원장을 비롯한 앞선 발표자들의 참여로 이뤄졌습니다. 유한범 사무총장은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발족식 이후 그간 많은 노력을 통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2 차 세미나 개최는 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을 모셔 여러 활동을 민간에 알리고 소통하자는 취지"임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최준우 컴플라이언스분과 위원장은 "기업 반부패는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되며, 오늘날의 사회적 니즈와 분위기는 변화에 희망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기업은 공공선을 추구하기 보다 이윤을 쫓는 목적이 큰 조직적·자본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의 제재적 장치를 통해 내부 활동자들이 더 힘을 얻고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반부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내부·외부에서 필요하며, 사회적 분위기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포럼의 실무총괄을 맡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책임연구원은, "지난 4 월 국회에서 포럼 발족 이후 개최된 세미나는 기업 반부패 경영과 관련된 논의 및 소통, 인식제고의 자리를 마련했다면, 내년에는 국회의원 및 관련 정부부처와 함께 법제도 개선과 정책 제언을 본격화할 계획이다"고 언급하며, 규제, 인센티브 정책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한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의 지속적인 활동과 이와 관련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본 세미나를 마무리했습니다.

2019 년에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을 비롯한 반부패 확산 및 투명한 기업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원 기업 및 이해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원문보기

본부 소식

1. Executive Update: 인권, 기후 행동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

다음은 2018 년 12 월 6 일 GreenBiz 에 게시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CEO 겸 사무총장인 Lise Kingo 의 기사입니다.

2018 년 12 월 10 일 세계는 세계인권선언 70 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제 2 차 세계 대전의 공포를 기억하는 세계 지도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70 년 후, 그 문서에 명시된 권리는 현재 새로운 전지구적 규모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기후 변화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기후 변화의 영향력을 목도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가장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한 가장 불평등하게 피해를 입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미국의 산불, 일본과 나이지리아의 홍수, 파키스탄의 열파, 인도의 산사태에 이르기까지 2018 년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받거나 악화된 자연 재해로 파괴적인 손실을 입은 해였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생명권, 노동권, 식량, 의류 및 주택을 포함한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를 등은 직설적이고 포괄적입니다. 이 선언은 인간의 존엄성에 필요한 필수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반대로 기후 변화는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가 생존하고 번영하는 데 필요한 토대를 위협합니다.

전 세계의 기업들이 저-탄소 경제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파리 기후 협정에 대한 약속을 했고 수백 명이 그 합의에 따라 과학 기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로 인해 영향 받은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이를 해결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을 가속화함에 따라 이러한 행동은 인권에 대한 존중과 지원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기후 변화는 우리가 살고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녹색 일자리 기회가 계속 증가하면서도 여러 개인들과 심지어 공동체 전체가 빠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효과적인 저탄소 미래를 건설하지 않으면 빈곤과 불평등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엄청난 변화의 순간은 2030 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의제에서 목표한 바와 같이 환경, 경제, 사회 모두를 위해 희망적인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권 중심 기반의 의제인 2030 의제와 17 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목표 13 이 기후 활동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지만, 상호 연결된 글로벌 목표들은 건강한 지구가 곧 번성하는 공동체와 포괄적인 경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인권 존중이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한 우리의 행동을 늦추자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권장하는 바와 같이 제로 탄소 경제로 더욱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은 지리학, 빈곤, 성별, 장애, 문화적 또는 민족적 배경으로 이미 불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떠맡게 되었으며 역사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에 가장 적은 기여를 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이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고무적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올바른 기후 변화 대응을 달성하려면 에너지 불안정에 직면한 공동체와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로 전환되는 지역 사회 사례와 같이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상호 연결된 고려사항을 기업 의사 결정 및 전략에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구의 장기적인

건강을 가져오는 기초가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사회와 비즈니스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2000 년 창설 이래, 비즈니스가 인권 정책에서 실질적인 실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핵심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 년에 글로벌콤팩트 로컬 네트워크들은 기업 지도자들이 유엔의 비즈니스 및 인권 원칙을 채택하고 아르헨티나와 터키, 폴란드, 미국 등 전 세계의 인권 중심 CEO 라운드테이블 회의 소집을 유도함으로써 인권을 옹호하였습니다.

2019 년 유엔 사무 총장 안토니오 구테헤스는 모든 사회 부문에서 기후 변화 퇴치에 대한 열정을 높이기 위해 기후 정상 회의를 소집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후 활동에 대한 원칙 기반 접근 방식을 취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즈니스의 주요 과제는 보편적인 인권 원칙을 기후 행동 전략의 중심에 두어 추진력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70 년 전, 세계인권선언은 미래를 향한 야심 찬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날 지속가능한발전목표는 그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성화를 들고 전진시켜 그 비전의 실현에 기여할 때입니다.

- 원문보기

2. 세계 반부패의 날, 유엔글로벌콤팩트 CEO 겸 사무 총장 Lise Kingo 의 성명서

부패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에 대한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입니다. 부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에 의해 계획된 공정하고 공평한 세계의 기초를 침식할 수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부패는 더 많은 부패를 낳고, 면책을 낳는 문화를 조성한다."라 하였습니다.

제 15 회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이함에 따라, 우리 유엔글로벌콤팩트는 부패와의 지속적인 싸움에서 기업의 역할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 유엔글로벌콤팩트 10 번째 원칙도 15 주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유엔부패방지협약에서 파생된 우리의 10 번째 원칙은 2004 년 6 월 24 일 기업 공동체의 지원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이 자신이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강탈과 뇌물 수수 등 모든 형태의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장기적인 이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법적 및 평판 위험에서부터 부패의 재정적 비용, 직원, 주주 및 기타 이해 관계자 간의 신뢰 침식에 이르기까지 부패와 효과적으로 싸우지 못하는 기업은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게 됩니다. 규모와 부문에 상관없이 어떤 회사도 부패에 면역 될 수 없으며 잠재적인 피해의 가능성은 상당합니다.

OECD 에 따르면 부패에 따른 비용은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총 비용의 최대 10 %, 개발 도상국의 조달 계약 비용의 최대 25 %까지 이릅니다. 한편 IMF 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뇌물 수수로 인해 연간 2 조 달러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부패가 지속 가능성의 뿌리를 갉아먹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참가자들은 반부패 노력에 고무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2018 년 이행 보고서'는 비즈니스의 부패 대응 행동에서 강력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조사 대상 기업의 91 %가 부패 방지 정책과 관련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2008 년 이후 10 % 증가율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부패 원칙은 지난 10 년 동안 다른 9 가지 원칙보다 더 많은 진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0 번째 원칙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16 번째 목표의 비즈니스 구현을 주류화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학습 플랫폼 'UN Global Compact Academy'는 부패 방지에 관한 가상 세션 및 학습 과정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에 관한 행동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표준과 행동을 주도하며 16 번째 목표를 발전시키는 선도적인 회사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글로벌콤팩트 로컬 네트워크와 함께 공동노력(Collective Action) 이니셔티브를 이행하여 정책이 실행되도록 구현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진정한 투명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부문은 부패에 대한 무관용정책을 시행하고, 부패 위험 평가를 실시하며, 수익소유권을 공개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여, 가치 사슬 내의 부패 방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가 원하는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투명성과 부패 방지를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이와 같은 정책을 채택하고 우리와 손잡을 것을 촉구합니다.

- 원문보기

3. 유엔글로벌콤팩트, 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준의 포부를 가지고 과학적 기반의 목표를 설정할 것을 촉구

COP 24 에서 기후관리 고위 회의를 통해 제로탄소 미래로 가는 길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들이 모였습니다. 2018 년 12 월 10 일, 경제, 금융, 시민 사회, 유엔 및 정부의 고위 간부들이 제 24 차 당사국 총회(COP 24)에서 모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관련해 저탄소 및 탄력적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 단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후 관리를 위한 고위급 회의는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유엔환경 및 UNFCCC 와 함께 소집하여 2019 년 9 월에 있을 유엔사무총장 기후 정상 회의에 대한 기업 행동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1.5 도 목표, 궁극적으로는 제로 탄소 미래를 위해 재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과 파트너십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리세 킹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리더들에게 민간 부문이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포부와 강력한 리더십을 동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파트너십 및 이니셔티브를 확인하도록 권장했습니다.

리세 사무총장은 "유엔글로벌콤팩트에서는 많은 분야와 지역에 포괄하는 모든 기업들이, 과학적 감축목표를 새로운 수준의 포부로 설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파리 협정 이행을 위한 규정집을 만들기 위해 카토위체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것만큼 이 유일무이한 기회를 통해 대담한 사업 행동과 야심 찬 정부 정책의 긍정적인 강화에 참여해야 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기후 행동에 대한 공공 기업의 노력은 야심 찬 기후 정책의 경제적 사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러한 조치는 정부와 투자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를 '앰비션 루프'라고 부르며 정부들이 비즈니스 리더십의 성장을 기반으로 점점 더 강력하고 야심 찬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확실한 기회를 갖고 있다"고 리세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19 년 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런던에 본사를 둔 Volans 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그리고 선도적인 회사들이 새로운 탄소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동원될 것입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저탄소 경제를 구축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을 가속화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된 기업의 기후 행동을 리더십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모든 기후 행동과 기업 운영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성취와 상호 연관되어 인권을 증진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라고 킹고는 말했습니다.

2019 년 기후 정상 회담의 유엔사무총장 특별 특사, 루이스 알폰소 데 알바 (Luis Alfonso De Alba) 대사는 포부을 키우고 최신 기후과학과 일치시켜야 하는 긴급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회사 임원들에게 다가오는 정상 회담을 야심 찬 계획을 위한 플랫폼으로 사용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는 "최근 보고서, 특히 IPCC 의 1.5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는 훨씬 더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파리 협정을 다시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혁신적이고 변형적인 제안을 회담에서 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스웨덴의 기후 변화 대사, 라스 론 네즈 (Lars Ronnås)는 새로운 논문인 '앰비션 루프 - 비즈니스와 정부가 제로카본 경제 성장을 빠르게 추적할 수 있는 정책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지지하며 무 화석연료 스웨덴과 같은 다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의 정책 권고가 대담한 기업의 공적 전념 선언과 정부 정책에 의해 강화되어, 얼마나 명확한지를 공유했습니다.

긴급한 조치와 파트너십 요청

UNFCCC 의 오바리스 사르마드 (Ovais Sarmad)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파리 협정을 운영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이번 주 말까지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유엔이나 다른 어떤 조직도 이 도전을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며, 여기서 유엔글로벌콤팩트가 매우 의미 있고 유용한 파트너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 이라며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참여하는 9,500 개 이상의 회사를 언급하면서 말했습니다.

세계자원연구소의 CEO 인 앤드류 스티어 (Andrew Steer)는 또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급진적인 변화를 용인하고 장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파트너십입니다. 2050 년까지 우리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들과 시민들 사이에 콤팩트, 정부와 기업 간의 콤팩트, 그리고 기업들이 운영하는 국가의 시민 간의 콤팩트입니다."

민간 부문을 대표하는 Maersk 의 기후변화 수석 고문인 존 코너업 뱅 (John Kornerup Bang)은 제로탄소 미래에 대한 회사의 활동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2050 년까지 완전히 탈탄소화해야하며 그렇게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혼자서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기술 공급자 없이는 할 수 없고, 공급망의 혁신 없이는 할 수 없고, 규제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

순환적 경제에 대한 사고방식 바꾸기

Mars, Inc 의 지속 가능성 참여 및 파트너십 수석 이사인 Lisa Manley 는 과학적으로 보여지는 스케일로 기후 변화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재생에너지로 직접적으로 하는 일 뿐만 아니라 농업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특히 삼림 벌채로부터 나오는 배출량에 대해서도 대처해야 합니다. 과학기반목표에 초점을 맞춘 기업들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오늘날 과학기반목표에 초점을 맞춘 500 개 기업들은 배출량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는 아직 너무 작습니다."

정책 대화에 참여

COP 24 의 대통령과 마이클 커티카(Michał Kurtyka) 폴란드 국무 장관은 폐회사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의 행동은 산업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3 년 전 파리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합의한 원칙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노력(Collective action)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수익성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여러분의 관점에서 비용보다는 기회라는 것이 점점 더 굳혀지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는 회의실에 있는 기업인들에게 말했습니다.

2013 년 폴란드의 COP 19 에서 시작된 기후 정책 책임 정책 참여 안내서에 비추어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의 전무 이사 제니처 모간(Jennifer Morgan)은 민간 부문이 기업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관한 대화를 위해 정부와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당장의 격차는 참여로, 당신이 기업에서 하는 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논쟁에서도 일어나는 참여입니다. 이제는 불편함을 느끼며, 우리 모두가 안전지대 가장자리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출량 격차 보고서를 최근에 개최한 유엔환경의 차관보인 샤트야 트라이패시(Satya Tripathi)는 현재 세계가 다루고 있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는 일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남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내가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거래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왔습니다. 가치 기반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가치 있는 것을 하나 골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의 공간에서 챔피언이 되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움직이고, 나도 움직인다"고 그는 말했다.

SUEZ 의 아프리카, 중동, 인도, 아시아 및 태평양 그룹 부회장인 버트란드 카무스(Bertrand Camus)는 물 및 폐기물 관리 솔루션의 글로벌 공급 업체인 그의 회사가 매일 그리고 모든 곳에서 기후 변화의 영향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물과 폐기물 관리 전문 회사에서 순환 및 저탄소 경제 분야의 선두 주자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1.5 도 경로로 이동하고 이런 환경의 적응에 대해 해결책 중 하나라고 진정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

2019 년 9 월 유엔 사무총장 기후정상회담에 앞서 기후관리 이니셔티브와 유엔글로벌콤팩트 의 저탄소와 탄력적 개발 행동 플랫폼을 통해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정상회의에 야심적이고 의미 있는 기여를 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세상을 지킬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가 우리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매 0.5 도마다 큰 차이를 일으키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라고 리세킹고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창문이 빠르게 닫히고 있지만, 항로를 바꾸고 1.5 도 목표를 달성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과 도구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 원문보기

4. [본부발간자료] The Ambition Loop - How Business and Government Can Advance Policies that Fast Track Zero-Carbon Economic Growth (2018)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비즈니스 차원의 행동은 정부에게 자신감과 신뢰를 더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기후 목표를 더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제정하게끔 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소개된 야심 찬 목표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입법안은 회사의 제로 탄소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과 확실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결합하게 되면 긍정적인 선순환, 즉, 앰비션 루프(ambition loop)가 생기게 됩니다. 기업들은 이미 100 퍼센트 재생 에너지 참여, 에너지 효율 증가, 삼림 벌채 종식, 제로 카본 차량으로의 전환하는 등 과학적 감축 목표를 추구하며 앰비션 루프의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본 발간물은 기업과 정부가 탄소-제로 경제 성장을 빠르게 추적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과감한 기후 변화 해결책을 추구하는 수백 개의 사업체와 2020 년 이전까지 기후 계획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국가들의 노력으로 더 큰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탄소-제로 경제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확산하고 기업이 기후 솔루션에 대한 추가적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명확함과 자신감을 회사에게 제공해야합니다. 이것이 바로 '앰비션 루프(Ambition Loop)'가 되며 이는 대담한 정부 정책과 민간 부문의 리더십이 상호 강화시켜 함께 기후 행동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피드백 고리입니다.

앰비션 루프(Ambition Loop)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 연구들을 포함합니다.

- 노르웨이와 캘리포니아는 강력한 요구와 인센티브를 통해 전기 자동차 판매의 글로벌 리더가 되었습니다.
- 명확한 자금 조달은 중국에서 전기 버스의 급속한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의 코코아 공급망 투명성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은 삼림 벌채를 줄이는 동시에 코코아 생산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원문보기

SDGs 소식

1.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목표 4 – 양질의 교육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The Blueprint for SDGs Leadership)은 17 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기업 리더십 사례와 책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의 SDGs 이행을 위한 전략, 목표, 영향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제시한 행동 플랫폼(Action Platform) 중 하나입니다.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은 LEAD 기업, 유엔 기구, 시민사회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개발한 UNGC 각국협회 실무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SDGs 이행을 위한 전략, 목표, 영향력 등을 구체화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포괄적이고 공평하며 양질의 교육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15 년간 교육 등록률이 크게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 년 순 등록률은 초등 교육의 경우 89 %, 중등 교육의 경우 65 %였습니다. 초등 학교 연령의 6100 만 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약 2 억 6 천 3 백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와 남아시아가 세계 학교 미등록 인구의 70 %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도적인 회사들은 교육사업을 지원합니다. 자신의 운영 및 공급망 전반에 걸친 직원들에게 직업 훈련 및 평생 학습 기회에 대한 접근을 용이 하게함으로써 기업은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도적인 회사들은 모든 직원이 부양 가족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생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공급 업체 또한 이를 모방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기업은 고등 교육에 대한 접근과 공평하고 포괄적인 무료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위해 앞장설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육 접근 및 학습 결과를 향상시킬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 개발 및 배포를 통해 교육에 대한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BUSINESS ACTION 1

비즈니스 및 공급망 내의 모든 직원이 직업 교육 및 평생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우수사례

- 커피 회사 A는 현지 대학과 제휴하여 직원들에게 비용없이 또는 높은 비율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업 B는 직원들에게 안식 기간을 주어 지역 학교를 찾아 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는 직원들로 하여금 지역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BUSINESS ACTION 2

비즈니스 및 공급망의 모든 직원이 부양 가족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아동 노동 착취를 근절합니다.

우수사례

- 의류 회사 C는 공급 업체의 생활 임금 지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진전 상황을 적절하게 추적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디지털 지불방식의 사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전자 회사 D는 공급 업체가 적절한 임금을 지불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정책을 구현하여 모든 직원이 부양 가족의 교육 및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고 추가 소득을 위해 어린이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BUSINESS ACTION 3

불우한 이들에 중점을 두어 고등 교육을 지원하고 무료의, 공평하고 포괄적인 초등 및 중등 교육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합니다.

우수사례

- 글로벌 IT 회사 E는 개발 도상국의 엔지니어링 학교에 투자하고 현지 직원을 고용 및 훈련하며 여성 학생들이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컨설팅 회사 F는 경제적으로 불우한 지역의 교사 역량을 향상시키고 해당 지역의 교육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했습니다.

BUSINESS ACTION 4

교육적 접근 및 학습 결과를 개선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연구, 개발 및 배포합니다

우수사례

- IT 회사 G는 소외된 지역에 모바일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배포하여 원격 커뮤니티 교육을 통한 혁신적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민간 부문 교육 회사 H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하는 오픈 소스 웹 툴 및 대규모 오픈 온라인 코스를 개발했습니다.

-원문보기

2. [SDGs 시장기회] 스마트한 수도 기술

스마트 수도 인프라의 사용은 도시가 물 분배 네트워크를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기후 파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후 변화에 직면한 지금,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하는 것은 도시에 있어 점점 더 많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비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시스템과 누출이 발생하기 쉬운 노화 인프라로 인해 소비자의 수도꼭지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많은 물이 손실됩니다. 스마트한 수도 기술은 도시 물의 흐름, 압력 및 분배에 대한 의미 있고 실행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설계되어 고객들에게 손실을 방지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혁신 기술은 이 분야에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워터 관리를 중심으로 새롭고 스마트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배수관에서의 막대한 물 손실을 줄이고 전반적인 물 소비를 줄이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Products and Services

스마트 센서는 스마트 워터 시장 내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중추를 형성합니다. 파이프 및 기타 중요한 수자원 관리 인프라에 부착된 스마트 센서는 누출을 감지하고 강우량, pH, 온도, 탁도, 흐름, 압력 및 오염 수준을 포함한 물 관련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스마트 센서는 Wi-Fi 로의 연결이 가능하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저장소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센서는 진정한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대형 데이터 세트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고급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선과 누출 중단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Market Size and Demand Driv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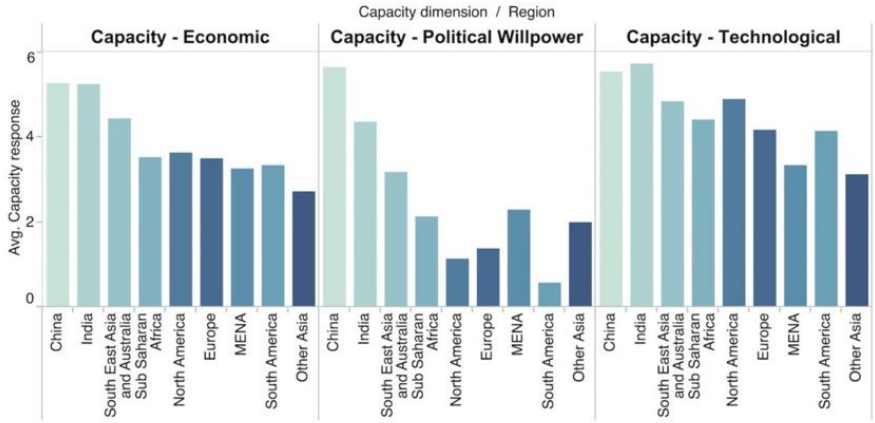
스마트 워터 관리와 관련한 세계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18.9 %로 2016 년 84 억 6 천만 달러에서 2021 년까지 201 억 달러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회를 확대하여 스마트 워터 계량 시장은 2016 년에서 2021 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7.23 %로 2016 년 38 억 8 천 달러에서 2021 년까지 55 억 천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북미 지역이 스마트 워터 계량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향후 몇 년 안에 유럽에서도 상당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후화된 물 인프라를 대체 해야 할 필요성이 향후 스마트 워터 관리와 관련한 가장 큰 시장 수요 원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기후 변화와 도시화는 천연 자원과 도시 시스템에 막대한 압력을 가할 것이며 스마트 워터 시스템이 바로 이러한 기후 혼란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뭄과 물 부족의 빈도가 계속되면서 스마트 워터 기술에 대한 수요가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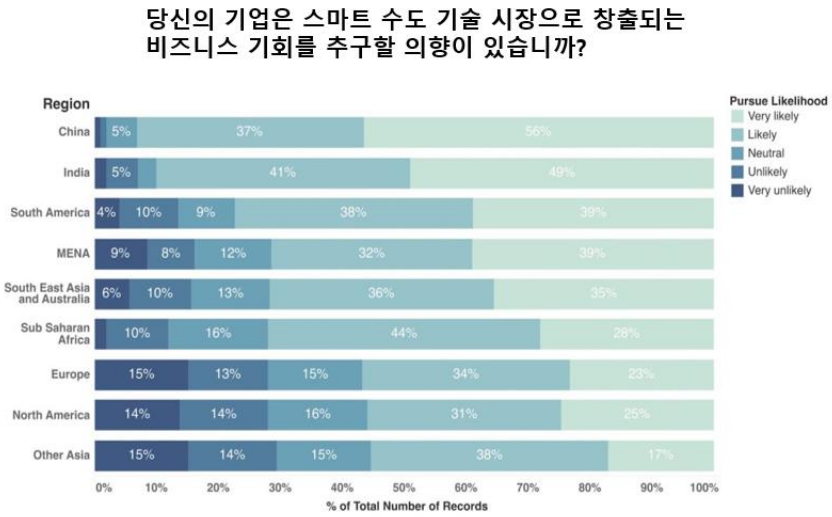
Survey Findings

도시에서의 스마트 워터 기술 채택은 2016 년에 조사된 모든 지역에서 최고의 시장 기회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시장 기회는 높은 인간개발지수 점수를 가진 지역에서 보다 수용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과 동남아시아 및 호주의 응답자 그리고 인도, MENA 및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응답자가 매우 긍정적으로 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수도 기술을 통한 기회 창출 역량



MENA 지역의 지도자들은 이 시장 기회가 비즈니스 측면에서 강력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합니다. 중국에서 또한 이 시장 기회가 강력한 비즈니스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스마트 워터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사에 참여 된 지도자들은 시민 사회와 비즈니스 모두 스마트 워터 기술 시장을 강력하게 지지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민 사회 - 민간 부문 파트너십이 주를 이루어 이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스마트 워터 기술을 통한 비즈니스 기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2016 년에 공공 및 민간 부문 5500 명 이상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연구 회사인 YouGov 와 공동으로 진행되었으며 결과 원본은 Global Opportunity Report 2017 에 공개되었습니다.

- 원문보기

3. [SDGs 솔루션] 원하는 대로 변형되는 모듈식 아동 가구

아카디아 디자인(Arcadia Design)의 아동용 가구 컬렉션은 '모듈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성장한 후에도 창의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오랫동안 가족과 함께 머무를 수 있습니다.

아카디아 디자인(건축가, 디자이너 마시모 게르마니)은 아이가 성장하는 여러 시기 동안 가족의 필요에 맞게 리모델링할 수 있는 완전히 모듈화된 아동용 가구 컬렉션을 디자인했습니다. 어린이가 가구보다 커졌을 때 조각을 분해하여 책상, 사진 프레임, 화단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창의적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듈식 디자인은 가구의 한 부분이 손상되었을 때 전체 부품을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지며 (각 부분의 부품은 개별적으로 구매 가능) 이는 가구 수명의 연장을 의미합니다.

각 조각들은 나무로만 제작되고 섬유판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접착제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무독성 광택제로 코팅되어 있으며 수성 페인트로 칠이 더해져 있어 제품을 보다 쉽게 리모델링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나무 재료는 Forest Stewardship Council 에서 인증한 유럽 물푸레나무 또는 현지에서 재배된 이탈리아 밤나무, 이 두 가지로 생산되며 포장 및 운송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각 제품은 분해 되어 배송됩니다.

Why you should care

유럽의 기업과 소비자는 저품질 재료, 수리불가 및 예비 부품 부족, 제한된 역 물류 인프라 등으로 인해 매년 1,000 만 톤 이상의 가구를 폐기합니다. 아카디아 디자인은 어린이 가구 제품에 순환형 디자인 원칙을 적용하여 내구성 있고 수리가 쉬우며 사용 후 쉽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How the Global Goals are addressed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아카디아 디자인은 가구가 내구성이 있고 쉽게 용도 변경 또는 수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 관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문보기

UNGC 회원 뉴스

1. 아프리카 케냐 감염병, KT가 막는다

아프리카 케냐 감염병, KT가 막는다

기사입력 2018.12.12 09:18 최종수정 2018.12.12 09:18

왼쪽부터 윤혜정 KT 빅데이터사업지원단장, 케서린 게타오(Katherine Getao) 케냐 정통부 ICT 전산원장, 피터 체루티치(Peter Cherutich) 케냐 보건부 부국장, 스티븐 체게(Stephen Chege) 사파리콤 대외협력 부사장이 GEPP 착공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KT 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나섬. KT 는 11 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 사파리콤 본사에서 '글로벌 감염병 확산 방지 플랫폼' 착공식을 열음. 사파리콤은 케냐 1 위 통신사임. 이번 착공식은 KT 의 '글로벌 감염병 확산 방지 플랫폼(GEPP, Global Epidemic Prevention Platform)'이 해외에서 구축된 첫 사례임.
- 반기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명예회장은 착공식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민관 협력의 실질적인 사례가 이뤄졌다"고 평가하였음
- GEPP 는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정보를 감영병 데이터와 접목해 감염병 확산을 막는 플랫폼임. 케냐의 경우 케냐 보건부에서 설정한 국내외 감염병 정보와 감염병 위험 지역을 여행 중인 사라피콤의 가입자의 정보를 수신해 통합 분석함. 이어 가입자에게 SMS 를 통해 개인차원의 예방과 응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KT 입장에서 케냐는 GEPP 의 성능을 활용하기 가장 적합한 국가임. 케냐는 지리적, 경제적 여건상 감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 케냐는 국경간 육로 이동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기에 외국인 입국 비율이 높음.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인접국인 DR 콩고에서는 에볼라가 재발하여 450 여명이 감염됐고 225 명(11 월 기준)이 사망함.
- 원문보기

2. 농협은행, 7년 연속 은행권 사회공헌 '1위'

[IR라운지]③농협은행, 7년 연속 은행권 사회공헌 '1위'

입력시간 | 2018-12-12 06:00

- NH 농협은행은 연평균 1000 억원 이상을 사회공헌활동에 지출하며 지난 2011 년부터 7 년 연속으로 은행권 사회공헌 '1 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음.
- 분야별로는 △지역사회·공익 분야 656 억원 △서민금융 236 억원 △학술·교육 106 억원 △메세나(Mecenat)·체육 94 억원 △환경 및 글로벌 분야에 1 억원을 각각 투입함. 특히 농협은행은 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공익부문에 무게를 두고 있음.
-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도 활발히 이뤄져 작년 한 해 동안 2571 회에 걸쳐 6 만 2656 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는 1 만 6000 여명의 임직원이 매분기 1 회씩 참여한 셈이다. 임직원 재능나눔 봉사활동인 '행복채움금융교실', 농촌지역 독거 어르신을 위한 '말벗서비스'는 대표적인 임직원 재능기부 봉사활동이다.
- 농협은행은 지난 2012 년부터 '행복채움금융교실'을 통해 청소년 금융교육에 앞장서왔다. '1 사 1 교 금융교육' 결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난해 말 기준 960 개교와 결연을 맺어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학교에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016 년과 2017 년 2 년 연속 금융감독원 '1 사 1 교 금융교육 우수기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 들어서는 상반기 말 결연학교 수를 987 개교로 늘렸다.
- 원문보기

3. 한국도로공사, 한국윤리경영학회 학술대회 '윤리경영대상'

-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가 지난 1 일 열린 '2018 년 한국윤리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윤리경영대상을 받음. 한국윤리경영학회(회장 김정원 강원대학교 교수)가 주관하는 윤리경영대상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윤리경영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윤리경영 시스템과 전략 수립, CEO 의 의지, 사회공헌활동 등 각종 성과를 종합 심사함.

- 윤리경영을 중심으로 전개한 사회적 가치 추진체계의 성과를 인정받은 도로공사는 특히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를 구축해 사회적 가치 경영의 체계화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지난 5 월 사회성과 측정체계지표를 보유한 SK 사회공헌위원회와 사회적 가치 측정 협약을 체결한 도로공사는 추진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을 구체적인 지표로 측정해 평가하고 있음. 또한,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안전환경, 지역발전과 상생협력, 윤리경영 등 5 대 분야를 도공형 사회적 가치 실현 분야로 설정함.

- 이강래 사장은 "공사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 고속도로'라는 비전 아래 전 직원이 윤리경영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임직원들의 이러한 노력이 한국도로공사의 문화로 정착되어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함.

- 원문보기

4. 한전KDN, 협력사 '윤리·인권 경영체계 수립 지원' 협약식 개최

▲한전KDN(사장 박성철)은 협력사와 공정하고, 깨끗한 동반성장으로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13일 한전KDN에서 '협력사 윤리·인권 경영체계 수립 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한전KDN

협약식에는 한전KDN 사장과 15개 중소기업 협력사 대표가 참석했으며, 이날 협약식에서는 한전KDN이 중소기업 협력사에게 △협력사 계약담당자 윤리·인권 진단 및 교육, 성과점검 △협력사별 윤리·인권 시스템(웹사이트) 구축 서비스 등의 제공을 약속하고, 협력사가 이를 활용하여 △자체적인 윤리·인권 경영체계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협약이 이루어졌다.

- 한전 KDN(사장 박성철)은 협력사와 공정하고, 깨끗한 동반성장으로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13 일 한전 KDN 에서 '협력사 윤리·인권 경영체계 수립 지원 협약식'을 개최함.
- 협약식에는 한전 KDN 사장과 15 개 중소기업 협력사 대표가 참석했으며, 이날 협약식에서는 한전 KDN 이 중소기업 협력사에게 △협력사 계약담당자 윤리·인권 진단 및 교육, 성과점검 △협력사별 윤리·인권 시스템(웹사이트) 구축 서비스 등의 제공을 약속하고, 협력사가 이를 활용하여 △자체적인 윤리·인권 경영체계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협약이 이루어짐.
- 한전 KDN 박성철 사장은 "윤리·인권을 축으로 한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 KDN 과 중소기업 협력사가 함께 공정하고, 깨끗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함.
- 한편 한전 KDN 은 이번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협력사별 헌장 및 매뉴얼 수립 등 윤리·인권 경영체계 수립을 위한 컨설팅 △KDN 입찰 시 윤리·인권교육 수료 여부 확인 제도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임.
- 원문보기

CSR 뉴스

1. “부패통제 뉴거버넌스 통해 청렴 사회로 도약해야”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2차 세미나’에서 국내 반부패 현황과 기업의 반부패 경영 관련 정책 사안들이 논의됐다. 사진/KSRN

- 반부패 운동의 내용도 공공영역의 전통적 부패문제 해결에서 민간영역인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이나 국제스포츠기구의 부패문제 해결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뉴거버넌스’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부패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3 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2 차 세미나’가 진행됨.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한국투명성기구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국가권익위원회·청년사회민관협의회·공정위원회·금융위원회·법무부 등 여러 부처 담당자가 모여 국내 반부패 현황과 기업의 반부패 경영 관련 정책을 발표함.
- ▲ 한국 청렴수준, 갈 길 멀지만 긍정적 변화도 관측, ▲ 부패 행위의 특성을 살펴야 통제 가능해, ▲ 부패 피해 인식 확산을 위해 뉴거버넌스 활용해야, ▲ 정부의 ‘5 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의 내용을 다룸.
- 이날 행사를 진행한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은 “정부, 국회, 기업, 시민사회의 주체가 모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환경조성을 목표로 협의체가 구성되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함.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은 올해 협의내용을 기반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국회와 함께 시작할 예정임.
- 원문보기

2. 납품배제·거래중단…수출기업에 '사회적 책임'(CSR) 비상등

소규모 가구업체인 ㄱ사는 지난해 미국 글로벌 유통기업에 납품을 준비하던 중 '사회적책임'(CSR) 평가를 요청받았다. ㄱ기업은 150만원을 들여 CSR 평가를 받았으나 외국인 노동자 숙소의 안전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납품이 무산됐다.

수출기업 절반 이상이 CSR 이행 평가를 요구받고 있고, 평가 점수가 낮은 기업은 납품배제·거래중단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CSR 비상등'이 켜졌다.

대한상의(회장 박용만) 산하 지속가능경영원은 국내 수출기업 120여개사를 대상으로 '수출기업의 CSR 리스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출기업의 54%가 글로벌 고객사에 수출 또는 납품하는 과정에서 CSR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발표했다.

- 수출기업 절반 이상이 CSR 이행 평가를 요구받고 있고, 평가 점수가 낮은 기업은 납품배제·거래중단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CSR 비상등'이 켜짐.
- 대한상의(회장 박용만) 산하 지속가능경영원은 국내 수출기업 120 여개사를 대상으로 '수출기업의 CSR 리스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출기업의 54%가 글로벌 고객사에 수출 또는 납품하는 과정에서 CSR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6 일 발표함.
- 평가를 받은 기업 중 19.1%는 평가결과가 실제 사업에 영향을 줬다고 응답함. 사업에 영향을 준 방식은 '협력사 선정 배제'가 61.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해결 후 조건부 납품' 38.5%, '납품량 축소' 15.4%, '거래중단' 7.7% 순서였음. CSR 평가를 받은 분야는 환경(93.8%)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안전·보건(83.1%), 노동(80%), 인권(75.4%), 윤리(73.8%) 등이었음. 향후 글로벌 고객사의 CSR 평가가 강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73.8%를 차지했음. 또 CSR 평가가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78.6%에 이르렀음.
- 원문보기

3. 내년 사회적금융 2천400억원 공급…사회가치연대기금도 설립

- 내년에 사회적금융에 2 천 400 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됨.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할 사회가치연대기금도 설립됨.

-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권, 신용보증기금, 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이 회의에선 내년 사회적금융 공급 규모를 2 천 400 억원 이상으로 정함. 이는 올해 목표치인 1 천억원의 2.4 배로 올해 들어 11 월까지 공공부문에선 총 1 천 805 억원 상당의 사회적금융자금이 공급됨.

- 사회적금융 도매자금 공급기관인 사회가치연대기금은 내년 1 월 중 출범할 예정임. 사회적경제 조직에 자본을 공급하고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사회가치연대기금은 5 년간 3 천억원 규모로 조성됨.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보 확충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하기로 함. 구축된 정보는 신용정보원에 집중·공유함.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 중개 역할을 하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과 관련한 DB 도 구축함.

- 시중은행들은 사회적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은행연합회 차원의 모범규준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할 예정임. 모범규준에는 일선 대출담당 직원의 소극적 업무태도를 바꾸고자 면책근거를 도입하는 등 내용이 담길 계획임. 정부는 사회적금융의 양적 규모 자체가 부족하고 금융지원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출, 투자, 보증 등 금융지원에 우선 나서고 있음.

- 원문보기

4. “사회적 가치, 시민사회가 이끌고 정부가 지원해야”

(사회책임)“사회적 가치, 시민사회가 이끌고 정부가 지원해야”

국무총리실 산하 시민사회비서관실, 사회책임 활성화 위한 전문가 간담회 열어

“통합이 핵심…명확한 평가기준과 실질적 소통창구 마련해야”

뉴스토마토 입력 : 2018-12-10 08:00:10 | 수정 : 2018-12-10 08: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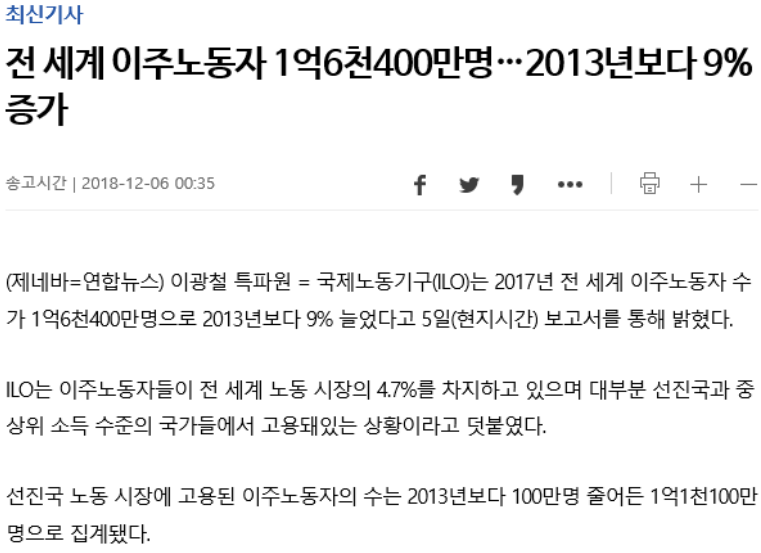
+ −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질문에 대한 해답은 대상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찾을 수 있다. 기업이 인재를 선발할 때 혁신을 추구한다면 도전정신과 창의성에 가점을 부여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충실한 기본기를 먼저 살핀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국정 기조나 정책의 방향성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진 경제적 효율성이 평가 기준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했다. 국가 차원에서 경제성장률이나 무역수지가 대표적이다. 같은 비용을 투입해서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느냐가 국가의 성장을 판단하는 가늠자 역할을 한 것이다. 기업을 평가할 땐 이견의 여지없이 수익률이 기준이 된다. 민간기업은 물론이고 공공기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매년 교통, 전기, 수자원 등의 공공재를 담당하는 공공부문의 체질 개선 논의가 이뤄지는 주요한 이유도 만성적인 적자에 기인한다.

-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은 대상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찾을 수 있음. 기업이 인재를 선발할 때 혁신을 추구한다면 도전정신과 창의성에 가점을 부여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충실한 기본기를 먼저 살핌. 국가도 마찬가지로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국정 기조나 정책의 방향성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음.
- 지금까진 경제적 효율성이 평가 기준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함. 국가 차원에서 경제성장률이나 무역수지가 대표적임. 같은 비용을 투입해서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느냐가 국가의 성장을 판단하는 가늠자 역할을 한 것임. 기업을 평가할 땐 이견의 여지없이 수익률이 기준이 됨. 매년 교통, 전기, 수자원 등의 공공재를 담당하는 공공부문의 체질 개선 논의가 이뤄지는 주요한 이유도 만성적인 적자에 기인함.
- 새로운 기준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아무리 경제적 성과가 좋더라도 ‘사회적 가치’를 훼손한 이들에 대한 시선은 냉담하기에, 양적 평가와 별도로 질적 평가, 즉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고 있는 셈임.
- ▲공공부문에 먼저 도입된 사회적 가치, ▲사회가치 확산 위해 사회책임 전문가 간담회 열려, ▲사회적 가치 측정기준 통합이 우선돼야, ▲부처별로 다른 정책…일원화한 소통창구 필요, ▲지속가능한 시민사회를 고민할 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원문보기

5. 전 세계 이주노동자 1억6천400만명...2013년보다 9% 증가



최신기사

전 세계 이주노동자 1억6천400만명…2013년보다 9% 증가

송고시간 | 2018-12-06 00:35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국제노동기구(ILO)는 2017년 전 세계 이주노동자 수가 1억6천400만명으로 2013년보다 9% 늘었다고 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ILO는 이주노동자들이 전 세계 노동 시장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선진국과 중상위 소득 수준의 국가들에서 고용돼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선진국 노동 시장에 고용된 이주노동자의 수는 2013년보다 100만명 줄어든 1억1천100만명으로 집계됐다.

- 노동기구(ILO)는 2017 년 전 세계 이주노동자 수가 1 억 6 천 400 만명으로 2013 년보다 9% 늘었다고 5 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밝힘. ILO 는 이주노동자들이 전 세계 노동 시장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선진국과 중상위 소득 수준의 국가들에서 고용돼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임. 선진국 노동 시장에 고용된 이주노동자의 수는 2013 년보다 100 만명 줄어든 1 억 1 천 100 만명으로 집계됨.
- 이주노동자의 58%(9 천 600 만명)는 남성으로 남성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2013 년보다 2% 포인트 증가함.
- 이주노동자는 만 15 세 이상 노동자 중 일자리를 찾아 외국으로 가거나 외국으로 이주한 뒤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임. 법적인 체류 지위를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합한 개념이고 노동 시장에 뛰어든 난민들도 포함돼 있음.
- 엘라 토메이 ILO 노동 조건 및 평등 담당 국장은 최근 이주에 대해 '위기'나 '침략'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적절히 관리된다면 이주노동자는 본국이나 이들이 취업한 국가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함. 메이 국장은 또 이달 10~11 일 모로코에서 채택 예정인 이주에 관한 유엔 글로벌 콤팩트를 각국이 지지해줄 것을 촉구함.
- 원문보기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12 월 1 일부터 12 월 15 일까지 UNGC 본부의 승인을 받아 UNGC 본부와 한국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는 없습니다.

2. COP/COE 제출회원

12 월 1 일부터 12 월 15 일까지 7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한국조폐공사
- 한국동서발전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한국광물자원공사
- 씨엔커뮤니케이션
-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남부발전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첫 COP 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 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매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와 한국협회에 동시 가입한 회원들은 한국협회에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회비 납부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연회비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치확산에 사용됩니다.

3. 2018 년 연회비 납부 안내

- **4/4 분기 연회비 납부 예정 기업 (납부 기한: 2018 년 12 월 28 일까지)**

※ 청구서 재발행을 원하시면 협회 사무처로 연락 바랍니다.

기술보증기금, 삼덕통상, 기아자동차,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사)유엔한국협회, ㈜아진트랜스, 스완커뮤니케이션, 국민연금, 한국인권재단, 한국투명성기구,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진해장애인복지관, 한화건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에쓰오일, LG 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티비에이치글로벌, 국민건강보험공단, 태광실업, 한국남부발전, ㈜제씨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미술등록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열매나눔재단, 한국가스공사, SK 이노베이션, ㈜나인, ㈜서스틴베스트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